

글쓰기에 대한 필자의 태도*

김정자**

<차례>

1. 머리말
2.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글쓰기에 대한 필자의 태도
4. 필자의 태도가 작문에 미치는 영향
5. 글쓰기 교육의 한 가능성

1. 머리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쓰기 자체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이기 때문이다. 학생들 또한 대부분 읽기나 말하기 등의 다른 언어 활동들보다 글쓰기를 지루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글을 쓰기 위해서 필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이나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언어 기호를 배열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아야만 한다.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구성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배경 지식과 상황이나 상대방에 대한 인식 능력 등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쓰기 연구와 교육에서 텍스트의 특성과 구조, 글쓰기의 과정, 글쓰기에 필요한 지식과 전략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작 글을 쓰는 사람인 필자에 대한 관심은

* 이 논문은 학술진흥재단의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인 서울대 국어교육 연구소의 '대중매체의 언어문화와 국어교육' 과제 수행으로 이루어졌음.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hyckjj@hananet.net)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필자가 글을 쓰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지식이나 표현 전략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었지만, 필자의 내면 상태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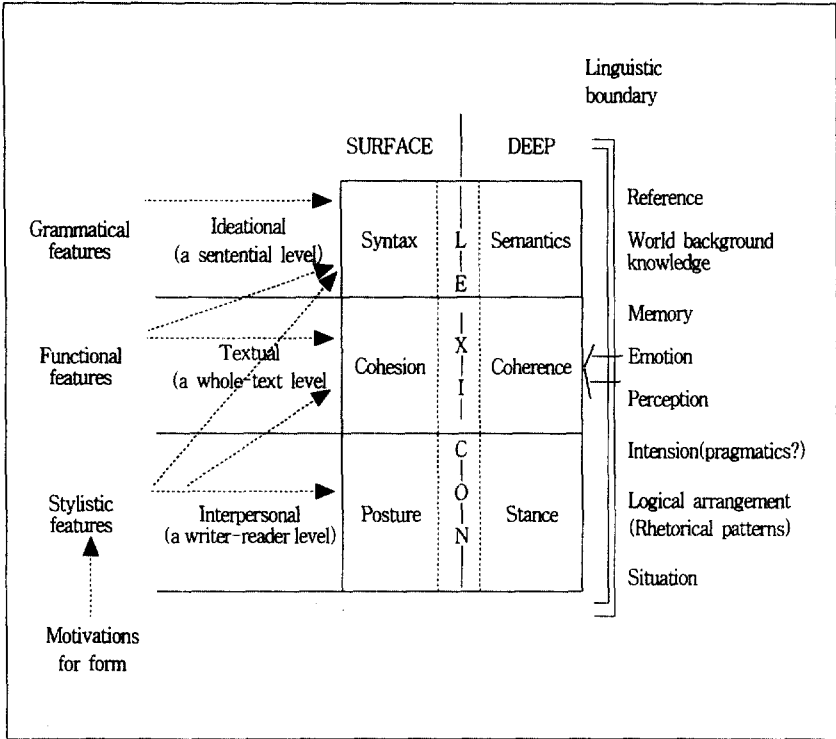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 글쓰기를 즐거워하는지, 글을 쓰기 좋아하는지, 어떤 글을 쓰기 어려워하는지, 글을 쓸 때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글을 쓰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글쓰기 자체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따라 개인의 글쓰기 과정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또한 글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그러한 태도를 지니게 된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글쓰기 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중요한 시사점과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글쓰기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텍스트 구성 모델은 글의 생산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과 그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는 방식을 보여 준다. Grabe & Kaplan(1996)의 텍스트 구성 모델을 살펴보자. 이들은 여러 다양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텍스트 구성 모델을 기술하기 위해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적어도 일곱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사론(syntax), 의미론(semantics), 어휘(lexicon), 결속구조(cohesion), 결속성(coherence), 기능적 차원(functional dimensions), 비언어적 자료(non-linguistic resources)가 텍스트 구성 모델의 기초를 형성하는 일곱 가지 구성 요소이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다차원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텍스트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언어적 경계를 중심으로 언어적인 것과 관련 있는 부분들과 비언어적인 자료로 나뉘어져 있으며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텍스트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텍스트 구성 모델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비언어적 요인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

지시, 세계 배경 지식, 기억, 정서, 지각, 의도, 논리적 배열, 상황



<그림 1> 텍스트 구성 모델 (Grabe, & Kaplan, 1996 : 81)

이 모든 것들은 텍스트의 여러 측면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텍스트 모델의 언어적 영역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다. 예를 들면, 지시는 실제 세계와 인지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는 능력이다. 정서나 지각, 의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세계 배경 지식, 기억, 그리고 상황은 내용과 맥락을 조직하기 위한 스키마나 프레임이다.

Kellogg(1994)는 의미 구성과 쓰기에 필수적인 요소를 몇 가지 설명하는데, 지식(knowledge)과 방법(method), 성격(personality)이 그것이다. 방법은 지식을 도출하고 조작하기 위해 필자가 사용하는 전략, 도구,

관습 등을 말한다. 성격¹⁾은 이론적으로 쓰기와 관계가 있는 개인적 차이의 몇 가지 차원을 지시한다. 성격을 구성하는 개인적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Kellogg는 지력(intelligence), 동기(motivation), 인지 유형(cognitive style), 불안(anxiety)의 네 가지를 필자들의 개인적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한 자료로 보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공통적인 것은 언어적 차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차원도 글쓰기 과정과 결과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비언어적 구성 요소는 다시 크게 인지적인 구성요소와 정의적인 구성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배경 지식이나 세계 지식은 인지적인 요소에 속하고, 정서, 동기, 불안 등은 정의적인 구성 요소에 속할 것이다.

글을 쓰는 동안에 필자의 인지적 측면과 함께 정의적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필자의 태도나 동기는 쓰기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필자가 느끼고 있는 불안, 초조, 행복, 슬픔, 분노 등의 정서와 글쓰기 상황의 분위기 등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글쓰기 과정과 글쓰기 결과에 드러나는 개인차를 해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재승(2000)은 작문 부진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것을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바꾸어 설명해도 될 것이다. 작자 내적 요인 중의 하나로 언어적 요인이나 인지적 요인 외에 정의·정서적 요인을 들고 있다.

1)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성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격이란 환경에 대한 적응이나 대인 관계에 비교적 일관성 있는 독특한 개인의 행동 양식이나 사고양식의 특징적인 소질이라 정의된다. 성격은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된다. 따라서 성격은 개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부여한다. 또 성격이란 어떤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주는 측면을 말한다(신용일 외, 1997: 252-253).

작자 내적 요인	인지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지능 · 기억력 · 스키마(내용에 대한 지식) · 일반적인 사고력
	언어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어 능력 · 국어 지식 · 어휘력
	정의 · 정서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 · 습관 · 집중력 · 부정적인 자아관
	신체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 기능의 약화 · 시각적 능력 · 청각적 능력 · 일반적인 신체 능력
작자 외적 요인	교육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프로그램 · 지도 방법 · 작문 자료 · 작문 환경
	가정 · 사회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문 환경의 미비 · 과도한 사회적 압력(부모, 입시) · 작문에 대한 미온적 시각 · 잘못된 작문관 · 작문 분위기 미조성

<표1> 작문부진의 원인(이재승, 2000:179)

정의적 · 정서적 요인으로는 동기 부족이나 집중력 부족을 들 수 있다. 글을 쓰는 데에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나 글쓰기에 대한 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은 글을 잘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작문 습관 역시 중요한데, 작문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거나 편중되게 하면 부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작문을 하는 데에는 집중력이 필요한데, 집중력이 부족하면 개념과 개념을 제대로 연결짓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제대로 쓰기 어렵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이나 초조 등을 가진 작자는 글을 잘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기에 대한 불신이 강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작자도 글을 잘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이재승, 2000:180-181).

쓰기 지도에서 필자의 인지적 요인과 언어적 요인 즉 배경 지식이나 전략, 언어 지식, 담화 구성 능력 등은 강조되어 왔으나, 정의적, 정서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못 했다고 할 수 있다.

3. 글쓰기에 대한 필자의 태도

국어과의 정의적 교육 내용에는 국어 사용과 관련되는, 국어에 대한, 문학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요인으로서 자세, 태도, 습관, 흥미, 동기, 가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성격의 교육 내용을 제 7차 교육 과정에서는 '태도'라는 범주명을 사용하여 구분하고 있다.²⁾ 이는 7차 교육 과정에서 태도를 중시하여 좀더 부각시킨 결과라고 <제 7차 국어과 교육 과정 개발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6, 7차 교육 과정을 비교해 보면, 7차 교육 과정의 '태도'범주는 6차 교육 과정의 '실제' 범주 중의 한 항목, 즉 4)공식적인 말하기의 태도 및 습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교육 과정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의 교육 활동은 각 영역의 '본질', '원리', '태도' 범주의 교육 내용과 '실제' 범주의 교육 내용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야 의도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학년별 내용'을 선정, 조직, 배열한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제 7차 교육 과정에서는 국어 교과와 교육 내용을,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으로서의 '학습 요소(내용)'와 이 학습 요소를 학습함으로써 학습자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서의 '수행' 두 차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고 한다. 학습 요소로서 인지적 내용과 정의적 내용이 있는데, 인지적 교육의 첫 번째 유형을 명제적 지식, 둘째 번 유형은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지식'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명제적 지식 범주의 교육 내용을 '본질'로, 절차적 지식 범주의 교육 내용을 '원리', 정의적 내용은 '태도'로, 학습자가 이해하고 표현해야 하는 것은 '실제(언어 자료/텍스트)'라고 내용체계를 세웠다.

고 보고 '내용 체계'를 구조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쓰기'를 보다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쓰기의 필요성, 목적, 방법, 상황 등 '본질'에 관한 학습, 실제의 쓰기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리'에 관한 학습, 바람직한 글쓰기의 '태도'에 관한 학습이 구체적인 언어 자료(텍스트)의 산출과 통합되어야 함을 중시하여 '내용 체계'를 구조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국어'과의 쓰기 영역과 '작문' 과목에서 글쓰기의 태도를 기르기 위해 설정된 교육 내용을 살펴보자.

<쓰기>

- 1학년 - (5)쓰기에 대하여 흥미를 가진다.
- 2학년 - (5)바른 자세로 즐겨 쓰는 습관을 기른다.
- 3학년 - (8)쓰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
- 4학년 - (9)능동적으로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 5학년 - (10)쓰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태도를 지닌다.
- 6학년 - (7)쓰기의 방법을 활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7학년 - (6)글을 자주 쓰는 습관을 지닌다.
- 8학년 - (6)정확하게 글을 쓰려는 태도를 지닌다.
- 9학년 - (6)효과적으로 글을 쓰려는 태도를 지닌다.
- 10학년 - (6)창의적으로 글을 쓰려는 태도를 지닌다.

<작문>

작문의 태도

- ① 작문에 대한 내적 동기를 지닌다.
- ② 인간과 자연, 사회 현상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글로 쓰는 일에 흥미를 가진다.
- ③ 작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즐겨 쓰는 습관을 지닌다.
- ④ 작문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지닌다.
- ⑤ 아름다운 우리말을 골라 글을 쓰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작문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형성은 교육 과정의 목표 중 하나이다.³⁾ '작문에 대한 태도'에서는 작문에 관한 정의적 특성인 동기, 습관, 태도 등이 교수·학습의 중심 내용이 된다(교육 과정, 137). 이렇게 '태도' 범주의 교육 내용은 흥미나 동기 유발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습관 형성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⁴⁾

교육 과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정의적 교육 내용으로서의 '태도'는 글쓰기에 대한 필자의 태도이거나 필자의 글쓰는 자세, 필자가 지녀야 할 담화 예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쓰기의 방법을 활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정확하게 글을 쓰려는 태도를 지닌다.', '효과적으로 글을 쓰려는 태도를 지닌다.', '창의적으로 글을 쓰려는 태도를 지닌다.'에서 이것은 '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글쓰기의 '전략'이나 '방법'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하게 글을 쓴다, 효과적으로 글을 쓴다, 창의적으로 글을 쓴다'에 '태도를 지닌다'를 기계적으로 결합했을 뿐이며, 정의적 교육 내용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태도' 범주의 교육 내용 중 동기나 흥미, 글을 쓰는 습관 등은 글을 자주 쓰게 하거나 글을 쓰는 데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줄여 줄 수는 있다. 글쓰기에 대한 필자의 태도와 동기, 정서의 관계에 대해서 알

3) <작문>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작문의 이론을 이해하고 작문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글을 쓰는 목적, 대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과 작문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가진다.

가. 언어 표현 행위로서 작문의 본질을 이해한다.

나. 작문의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작문의 원리를 이해한다.

다. 작문의 원리와 작문의 상황에 맞게 사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한다.

라.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즐겨 글로 쓰는 태도를 지닌다.

- 4) 국어 교육의 내용 범주명으로서의 '태도'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개념이 확대·적용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김은성(1999)에서 이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태도' 범주에 '태도'가 포함되며, 둘째, '태도'범주의 교육 내용으로 동기, 흥미, 습관이 설정된 것은 부적절하다. 동기, 흥미, 습관은 학습을 촉진시키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교육의 목표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아불 필요가 있다.

태도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살펴보면, 태도는 특정한 대상(사람, 사물, 사건 또는 개념 등)에 대한 호오(好惡) 평가 차원의 내적 심리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태도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들⁵⁾에서 나타나는 공통성은, 태도란 외부로 나타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행동을 유발하는 개인 내부의 심리 상태를 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표현은 각기 다르나 태도란 분명히 개인이 접촉하는 구체적인 사람, 사물, 사태 등과 개인이 머리 속에 상식적으로 그리고 있는 세계 등 '특정의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내부적 심리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은 태도란 항상 특정의 대상을 전제로 하여 그 대상에 대한 반응경향을 갖게 되는 의미의 내부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박용현·문용린, 1990: 36).

그리고 태도의 본질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된 요인은 감정적 반응성향이라고 하는데, 이는 태도에 감정적 속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태도에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 감정적 느낌, 사물, 사람, 사건과 관련된 어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향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동기라든지 정서는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게 된다.

동기⁶⁾는 행동을 이해하고 이의 원인을 구명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다. 동기란 목표 지향적 행동의 방향, 지속성 및 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동기는 흥미, 즐거움, 만족감, 일 그 자체에 대한 도전 등으로 정의되는 내적 동기와 성적, 돈, 사회적 인정 같은 외적 보상으로 정의되는 외적 동기로 나뉘

5) Warren은 “어떤 유형의 행동을 위한 준비성의 한 조건이다.”고 정의한 바 있으며, 그 Allport도 “태도란 경험을 통하여 형성·조직된 준비성의 정신적 또는 신경적 상태로서, 그것에 관련된 모든 사물 및 상황에 대한 개인들의 반응에 지시적 또는 역동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Newcomb도 태도를 “동기유발을 위한 준비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차배근(1985)에서 재인용) 태도에 관한 보다 다양한 정의는 박용현·문용린(1990)을 참고할 것

6) 동기와 정서에 대한 내용은 박종영(1992)과 김경희(1995)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수 있다. 특히 성취 동기는 개인의 과업 성공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정서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지각하고 그에 따르는 생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복잡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다. 정서가 갖는 주관적 경험 가운데 하나는 행위 충동으로서 환경과의 특정한 형태의 만남을 통해서 나타난다. 20세기 초까지 정서는 감정(affect, feeling, Gefühl)과 동일한 것으로, 또는 혼동되어 사용되었다. 감정이란 용어는 여러 다른 용어들, 예컨대 불안·분노·사랑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를 일정한 범주로 분류하고 통합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현재 정서(emotion, Gemütsbewegung)는 여러 감정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기와 정서는 둘 다 각성상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차이가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양자의 일반적 차이점을 든다면, 정서는 근본적으로 특정자극에 대한 반응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데 반하여, 동기는 목표지향적 행동을 활성화시키고 이에 방향을 부여하는 내적 자극들에 의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상황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우선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생리적, 또는 신체적 각성을 일으키게 되며, 나아가 특정행동경향성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일부는 표현적 행동(예컨대, 미소 또는 울음)이고, 다른 일부는 그 정서를 일으킨 자극에 대한 반응양식으로 나타나는 수단적 행동들(예컨대, 공격 또는 도망)이다. 정서반응의 이와 같은 특성들은 개인에 따라 그리고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Kellogg(1994)에서도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와 불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글쓰기는 아주 강력한 의미 구성 행위이며, 이를 통해 필자는 의사소통과 자기 발견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쓰기에 대한 요구는 본질적으로 동기의 한 형태이며, 글 쓰기에 대해 내적 동기를 지닌 필자들은 글쓰기를 즐기고, 좀더 창의적인 글을 썼다는 것이다. 정서의 하나인 불안 또한 지적인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긍정적으로는 사람들이 유용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동기화하며,

부정적으로는 사고 자체를 무력화시키거나 사고 작용에 유해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동기는 일반적인 동기와 구체적인 동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동기는 표현을 하려는 동기인데, 이것은 표현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표현에 대한 왕성한 요구는 결국 표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구체적인 동기는 어떤 특정한 글을 쓰게 되는 동기를 말하는데, 이것은 그 글을 쓰는 의도와 글을 쓰는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자발적인 동기로 글을 쓸 때가, 강제적인 동기로 글을 쓸 때 예를 들어 과제나 시험 때문에 글을 쓰게 될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현의 과정 중에 느끼는 필자의 흥분, 놀람, 공포 등의 정서 또한 필자의 표현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다. 필자가 글쓰기에 대해 느끼는 과중한 불안이나 공포는 글쓰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여 글쓰기 자체를 싫어하고 글쓰기 과제를 기피하게 만들 것이다. Rose는 약 10%의 대학생이 과업을 피하려는 필자 장애(writer's block)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했다(Kellog, 1996: 115에서 재인용).

4. 필자의 태도가 작문에 미치는 영향

태도란 대체로 3가지 구성 요소 즉 인지적 요소, 감정적(정서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3가지 구성요소들이 서로 상호 연결되어 일정한 조직구조를 이루고 있다.

인지적 태도란 태도 대상물 그 자체 및 그것과 현실세계의 다른 속성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개인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신념들로 규정된다. 감정적 태도란 태도 대상물에 대한 개인들의 좋고 나쁜 느낌이나 감정에 대한 태도의 측면을 말한다. 그 방향과 강도가 다양하게 변하는 감정적 요소는 태도의 핵심적인 측면이라고 규정한다. 감정적 태도는 태도대상물에 대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 요소가 결여된 인지는 신념이나 판단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적 태도란 주어진 대상물에 대해 어

떠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말한다. 행동적 요소는 그러한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행동을 하려는 경향으로서의 태도의 측면을 말한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의 하나이다. 우리들의 행동을 기술하고 설명할 때, '태도'란 용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다. 어떤 대상을 대하는 입장이나 관점, 즉 내적 태도는 동작이나 표정, 말씨 등의 외적 행동으로 실현되어 나타난다.⁷⁾ 예를 들면, 노인을 공경하는 태도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으로 드러난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면 선거에서 그 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이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이다. 글쓰기에 대한 필자의 태도는 그가 글을 쓰는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글쓰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학생은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글을 쓰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필자는 글을 쓰는 것에 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글쓰기에 대한 태도는 필자의 지식과 이전의 글쓰기 경험 등에 의해 형성되며 앞으로 겪게 될 표현 경험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글을 쓰면서 글쓰기가 지닌 힘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면, 학생들은 글쓰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글쓰기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닌 필자는 글쓰기 과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표현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지닌 필자는 글쓰기 과제나 글을 써야

7) 물론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사람들이 언제나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이라고 표명하는 것과 일관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는 않는 이유를 Reardon(임철성 역, 1997: 198)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피할 때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태도-행동 비일관성을 유발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해당 태도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이다.

태도-행동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태도가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렇지 않은 연구결과보다 많으며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것이 정설이라고 하겠다(차배근, 1985: 21)

할 상황을 되도록 피하려고 할 것이다. 글쓰기에 대한 태도는 필자의 글쓰기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⁸⁾

따라서 본 필자는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래서 교양 과목으로서 작문을 듣는 H대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글을 쓸 때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를 했다.⁹⁾ 설문에서 부정적인 답과 긍정적인 답을 두 가지 제시했으며 나머지는 별 느낌이 없다는 것과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기타에 직접 자신이 느끼는 기분을 서술하도록 했다.

* 글을 쓸 때 어떤 기분을 느끼니까?

① 불안하다. () ② 행복하다.() ③ 즐겁다. ()

④ 별 느낌이 없다.() ⑤ 하기 싫다.()

⑥기타()

* 기타에 해당하시는 분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직접 써 주십시오.

* 그렇게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사를 하기 전, 작문 시간에 드러난 학생들의 행동과 반응으로 보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쓰기를 싫어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글을 쓸 때 즐거움보다는 불안함과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의외로 학생들은 글쓰기에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많이 답했다.

99명의 학생에게서 설문을 받았는데, 40명의 학생이 ‘행복하다’와 ‘즐

8) 읽기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reading)가 읽기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다. Mathewson은 읽기에 대한 태도는 읽기에 대한 지배적인 감정, 읽기를 위한 행동 준비성, 읽기에 대한 평가적 신념으로 구성되고, 이것이 읽기 의도에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텍스트 선택, 주의, 전략 사용, 이해를 포함하여 읽기 과정과 결과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읽기와 읽기 과정 중에 자극되고 형성된 만족스런 감정과 아이디어는 다시 읽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읽기에 대한 태도 연구는 Mathewson(1994)과 McKenna(1994)을 살펴볼 것.

9) 설문조사 기간은 2000년 12월이었으며, 연구실로 리포트를 내려 오는 학생에게 그 자리에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메일로 설문의 답을 받았다.

겁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이에 비해 '불안하다'와 '하기 싫다'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한 학생은 16명이었다. '별 느낌이 없다'에 21명, '기타'에 22명이 답했다.

'기타'에 해당하는 22명의 학생들의 다양한 대답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었다.

① 내가 쓰고 싶을 때나 쓰고 싶은 것을 쓸 때는 즐겁고 쓰기 싫은 것 억지로 쓸 때는 하기 싫다(8명)

② 긍정적인 대답(5명)

- 시원하다.(마음의 안정) 고민을 털어놓으므로
- 머리 속이 정리되며 창의적인 느낌을 갖는다.
- 잘 써질 때 쾌감을 느낀다.
- 감개무량하다.
- 기분해소가 된다.

③ 부정적인 대답(9명)

- 굉장히 답답하다.(2명)
- 머리 속이 혼란스럽다.
- 고민을 많이 한다.
- 나를 비판하게 된다.
- 부담감이 든다.
- 우울하다
- 어렵고 복잡하다.
- 힘들다

결국 글쓰기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닌 학생들보다 긍정적 태도를 지닌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다.

분명 교실 상황에서 본 필자가 체감하기에는 학생들은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글쓰기를 매우 부담스러워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의외였다. 그 원인 중 한 가지는 설문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교하지 못한 설문 문항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써야 하는 글의 종류에 따라 학생들이 그 글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를 것인데,

이 설문에서 어떠한 종류의 글을 쓸 때 인지를 명확하게 지적해주지 않았다. 즉 학생들이 생각하는 글쓰기와 본 필자가 설문 조사에서 염두에 둔 글쓰기가 달랐기 때문이다. 설문 조사에서 본 필자가 염두에 둔 글쓰기는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글쓰기였다. 그러나 그것을 설문에서 명시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글쓰기의 개념과 종류는 다양하고 개방적인 것이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아는 것이나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 쓸 때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며,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글쓰기가 좋다고 글쓰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교실 환경에서 과제로 주어지는 글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행복하다, 즐겁다’를 선택한 학생들이 그렇게 느낀 이유는 대부분 내 마음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대답(17명)을 했다. 하지만 글 쓰는 자체가 재미있다는 대답(10명)도 있고, 완성의 뿌듯함이나 창작의 즐거움(7명)을 언급한 대답도 있었고 기타¹⁰⁾의 대답을 한 학생은 6명이었다.

‘불안하다, 하기 싫다’를 선택한 학생들이 그렇게 느낀 이유로 대부분 부족한 자신의 글쓰기 능력(10명)을 들었다. 3명은 기타 여러 가지 이유¹¹⁾를 말했고 무응답이 3명이었다.

글을 쓸 때 ‘별 느낌이 없다’고 한 학생들이 그렇게 느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0) <기타>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다시 한 번 떠올려진다.
- 좋은 생각만 하게 된다. 그 순간은
- 별다른 이유는 없고 좋은 게 좋은거니깐
- 말로 표현할 때와는 다른 느낌
- 내가 글을 쓰고 싶을 때 쓰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므로 즐겁다.
- 글을 쓰면서 이 글을 누군가 보면 내 생각이 전달되는 것 같아

11)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성적에 관련된 리포트인 경우 불안하다. 글에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난다고 들었는데 그 때 이후로 이런 기분이 드는 것 같다.
- 난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즐겁다.
- 재미없다.

- ① 좋아서 하거나 쓰고 싶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명)
- ② 그냥, 글쓰기에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아서 (11명)
- ③ 글 쓰기에 대한 자신감 부족, 글을 잘 못 쓰기 때문에 (6명)

따라서 글쓰기 수업에서 학생이 진정으로 글쓰기를 즐기고, 수업에서 배운 작문 지식과 전략을 일상에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글쓰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 작문 지식이나 전략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리 없다.

다음의 질문은 학생들이 자신의 글을 스스로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 즉 자신의 글쓰기 결과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글쓰기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학생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학생들보다 글을 쓰는 것에 더욱 더 집중과 노력을 할 것이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 자신은 글을 어느 정도 잘 쓴다고 생각합니까?

- ① 아주 잘 쓴다
- ② 잘 쓰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못 쓰는 편이다.
- ⑤ 아주 못 쓴다.

글쓰기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닌 40명의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 잘 쓰는 편이다. - 8명
- 보통이다. - 26명
- 못 쓰는 편이다. - 5명
- 아주 못 쓴다. - 1명

전체의 20%는 자신이 글을 잘 쓴다고 대답했고, 65%의 학생들이 보통이라는 답을 했으므로 85%의 학생이 보통 이상의 답을 한 것이다. 자신의 글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전체의 15%이었다.

글쓰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16명의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 아주 잘 쓴다. - 1명
- 보통이다. - 8명
- 못 쓰는 편이다. - 7명

56.25%의 학생들이 보통 이상의 답을 했고 자신의 글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43.75%이었다.

학생들의 대답에서 글쓰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학생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글쓰기 결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글쓰기에 대한 필자의 태도는 항상 일정할까? 그렇지 않다. 이것은 태도가 진공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필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글쓰기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글쓰기 경험과 글쓰기에 관련한 여러 경험들이 필자의 글쓰기에 대한 태도를 형성했을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경험이나 교육에 의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어진 글쓰기 환경과 상황, 글쓰기 과제, 교사의 태도에 따라 글쓰기에 대한 필자의 태도는 변화할 것이다.

5. 글쓰기 교육의 한 가능성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글쓰기 교육 방법은 실제로 글을 써 보게 하는 것이다. 쓰기에 필요한 지식과 전략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 글을 잘 쓴다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글을 쓸 때 그것을 글의 목적과 내용,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쓰기 수행의 측정은 글의 질뿐만 아니라 글쓰기의 유창성과 생산성도 함께 측정해야 한다. 즉, 필자는 높은 생산성의 비율로 질 좋은 텍스트를 유창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글을 많이 쓰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글쓰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쓰기 지도에서 학생의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킬 만한 적절한 작문 과제를 제시해야 하며,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작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부담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반응해야 한다. 또 학생이 글을 쓰고 싶어하도록 글쓰기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작문 과제는 학생들의 관심이나 흥미를 잘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것이어야 한다. 작문 과제가 밖에서 강제적으로 주어졌을 때보다 자신이 그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글쓰기에 임하게 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과제가 강제적으로 주어졌을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글을 쓰기 싫어했다. “내가 쓰고 싶을 때나 쓰고 싶은 것을 쓸 때는 즐겁고 쓰기 싫은 것 억지로 쓸 때는 하기 싫다”고 쓴 학생들과 좋아서 하거나 “쓰고 싶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느낌이 없다는 학생들이 있었다.

학생들은 특정한 형식이나 종류의 글쓰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써나가거나 정리할 때 글쓰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앞의 설문 조사의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글을 쓸 때 ‘행복하다, 즐겁다’를 선택한 학생들이 그렇게 느낀 이유로 내 마음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제일 많이 했다.

따라서 글쓰기 학습의 초기에는 특정한 장르나 형식의 글쓰기보다는 학생들의 글쓰기 경험을 쌓고 글쓰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먼저 글쓰기를 즐겁게 하고, 자주 적극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즐겨 글을 쓰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결국 표현 지식이나 표현 전략의 인지적 학습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학생들이 글을 쓸 때 불안을 느끼거나 글쓰기를 지루해하고 싫어하는 등 글쓰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자신의 작문 능력이나 작문의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글을 쓸 때 불안하거나 하기 싫다고 한 학생들이 그렇게 느낀 이유들이다.

- 익숙하지 않고 힘들어서....
- 글 쓰는 부담감 때문
- 내가 쓴 글이 잘되고 있는지 걱정으로.....
- 내가 글을 그다지 잘 쓰지 못하니깐
- 내 맘대로 안 되니까
- 말이 잘 안 맞을까봐(논리적이지 않을까 봐)
- 내 생각을 그로 옮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 너무 장황하게 쓰려고 하고 정작 할 말을 다 하진 못 한다.
- 어휘력이 부족하여 글이 자연스럽게 연결시키지 못한다.
- 스스로 못 쓴다고 느끼므로 강박관념에

‘별 느낌이 없다’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도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나 글을 잘 못 쓰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한 학생들이 있었다.

스스로 글을 잘 못 쓴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글을 쓸 때 불안하고 글이 쓰기 싫은 학생들에게 교사의 평가라는 절차는 글쓰기를 더 싫어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교사를 평가자로만 인식하지 않게 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교사를 조금 앞선 동료 학생이나 선배로 느끼면서, 평가의 불안을 느끼지 않고 글쓰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작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조절해야 한다. 글쓰기 수업 초기에서부터 학생들의 작문에 대해 지나치게 교정을 한다거나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불유쾌한 글쓰기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학생들은 글쓰기에 대해 자신감을 잃게 되고 글쓰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글쓰기를 스스로 즐기면서 하고, 또 자주 글을 쓰면서 자신의 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될 때에 교사의 교정과 평가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글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 따라 자신의 반응을 적절히 조절해야 할 것이다.

글쓰기 상황이나 환경 또한 글쓰기에 대해 학생들이 취하는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학생들이 인위적인 상황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에서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학생들의 생활에 밀접한 과제를 제시해 준다고 해도 교실 상황이란 자체가 이미 인위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성적이나 벌 등의 이유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글을 쓰고 싶도록 글쓰기 상황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

설문조사에서 두 학생이 인터넷 상에서의 글쓰기를 언급하고 있었다. 자기가 속한 동호회에서 게시판에 글을 쓸 때는 즐겁다는 것이다.

즐거운 기분이 느낄 때도 있고, 하기 싫은 기분을 느낄 때도 있다. 간단하다. 내가 글을 쓰고 싶을 때 쓰면 즐겁다. 하지만 쓰기 싫은 글을 억지로 쓸 때는 기분xx다. 나는 농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한 농구게시판에 나름대로 농구에 관한 글을 가끔 쓰곤 하는데, 이 때는 글을 쓰는 것이 즐거운 편이다. 숙제같은 이유로 억지로 글을 쓸 때는 기분xx다.

모든지 나의 의지에 의해 하는 일이라면 즐겁다. 한때 인터넷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달에 글로 선정됐을 때 기뻐다.

글쓰기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한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이 아는 것, 관심 있는 것, 흥미있는 것에 대해 쓸 때는 즐겁다고 했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글이 넘쳐 난다. 교실 환경에서는 문학의 창작이 잘 되지 않아도 인터넷의 각종 사이트와 홈페이지에서는 아마추어 작가들의 창작이 넘쳐 난다. 교실 환경에서는 글쓰기를 싫어하면서도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인터넷 상에서의 글쓰기의 장점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익명성을 확보하여 평가라는 불안에서 해방되고 컴퓨터 글쓰기 특유의 언어(문법의 파괴, 소리나는 대로 표기, 축약, 비속어 및 은어, 유행어의 사용, 이모티콘의 사용 등)로 일탈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 게시판에서의 조회 수와 답글의 수에 따라 자기 표현의 욕구와 자기 과시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 재빠른 피드백과 상호작용 등도 인터넷 상에서의 글쓰기의 한 매력일 것이다. 더욱이 교실환경과 다른 점은 교사라는 평가자를 의식하지 않게 되어 솔직한 글을 쓰게 된다는 점이다. 교사의 평가를 의식하게 되면, 교사가 좋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쓰게 되며 이것은 자유로운 글쓰기를 억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의 글쓰기의 긍정적 효과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글을 쓰게 된다는 것, 즐겨 쓰게 된다는 것, 글쓰기의 습관을 기르게 된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효과는 자극적인 글을 쓰게 된다는 것, 즉 진지한 고민보다는 인기를 얻으려고 경박한 시류에 영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컴퓨터는 글쓰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작문의 원리 범주에 컴퓨터로 글쓰기가 새로이 추가되었다.¹²⁾

3학년 글을 컴퓨터로 옮겨 쓴다.

4학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쓴다.

5학년 전달효과를 고려하여 자신의 글을 컴퓨터로 편집한다.

12) 그러나 정재찬(2000)에서 지적했듯이 컴퓨터로 글쓰기가 교육 과정에 들어왔다 해서 대단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컴퓨터로 글쓰기가 고작해야 글쓰기 도구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컴퓨터 글쓰기에 관한 제반 문제, 즉 컴퓨터의 편집 기능이 갖는 글쓰기의 특성, 퇴고가 용이한 컴퓨터 기능으로 인한 글쓰기 과정의 변화, 컴퓨터 글쓰기의 문체상 특징, 정보의 저장과 처리가 용이함으로 인한 컴퓨터 글쓰기의 장점을 적극화하는 문제 등등이 연구되고 그것이 교육적 국면에 활용되지 않는 한, 컴퓨터 글쓰기를 도입한 의의는 소극적인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필기 도구의 변화, 즉 손에서 컴퓨터라는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교육과정에서의 “컴퓨터로 글쓰기”는 컴퓨터로 글쓰기가 가진 많은 가능성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글쓰기 수업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는, 컴퓨터로 서로 연결되어 글을 쓰게 될 때의 가능성을 놓치고 있다. 단순히 글쓰기에 새로운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매체가 지닌 특성과 장점을 학생들의 글쓰기 과정과 결과에 이용해야 한다.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의 글이나 좋아하는 종류의 글을 쓸 수 있도록 글쓰기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무조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학생들끼리 동호회나 커뮤니티를 만들어 함께 글을 써 나간다면, 자신의 글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글도 읽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글쓰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아니지만, 99명의 학생들 중에서 글쓰기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를 느낀다는 40명의 학생들, 그리고 기타의 대답을 한 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글쓰기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표현한 학생들에게서, 글쓰기 교육의 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그것은, 쓰기 교육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글을 쓸 수 있는 글쓰기 환경이나 상황, 작문 과제 등을 제공해 준다면, 학생들은 충분히 글쓰기를 즐겨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참고 문헌

- 강갑원(1998), “정서교육 개념의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
- 김부윤(1993), “정의적 영역에 관한 연구”, 청람수학교육 제 3輯, 한국교원대학교 수학교육연구소.

원대학교 수학교육연구소.

김은성(1999), 국어에 대한 태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우창(2000), “다원시대의 문학읽기와 교육”, 문학교육학 제6호, 문학교육학회

박수자(2000), “의사소통 매체와 언어 표현의 특징”, 국어교육학연구 제 10집, 국어교육학회.

박종영(1992), 심리학개론(全訂版), 대왕사.

신용일 외 3인 공저(1997), 심리학 개론, 동문사.

이수진(2001), 후기 과정중심 작문교육이론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승(2000), “작문 부진의 원인과 진단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제10집, 국어교육학회.

박용헌 · 문용린(1990), 情意의 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

정재찬(2000), “21C 문학교육의 전망”, 문학교육학 제6호, 문학교육학회.

Kellog, R. T.(1994), *The Psychology of Writing*, New York,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McKenna, M. C.(1994), Toward a Model of Reading Attitude Acquisition, In Cramer, E. H. & Castle, M.(eds.), *Fostering the Love of Reading: The Affective Domain in Reading Education*, IRA.

Mathewson, G. C.(1994), Model of Attitude Influence upon Reading and Learning to Read, In Ruddell, R. b., Ruddell, M. R. and Singer, H.(eds.),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 of Reading*(4th), IRA.

<초록>

글쓰기에 대한 필자의 태도

김 정 자

글을 쓸 때 필자의 인지적 측면과 함께 정의적 측면도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필자의 태도는 쓰기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태도는 특정한 대상(사람, 사물, 사건 또는 개념 등)에 대한 호오(好惡) 평가 차원의 내적 심리 상태로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 감정적 느낌, 사물, 사람, 사건과 관련된 어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향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동기라든지 정서는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게 된다. 쓰기에 대한 요구는 본질적으로 동기의 한 형태이며, 글 쓰기에 대해 내적 동기를 지닌 필자들은 글쓰기를 즐기고, 글쓰기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형성한다. 표현의 과정 중에 느끼는 필자의 흥분, 놀람, 공포 등의 정서 또한 필자의 표현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다. 필자가 글쓰기에 대해 느끼는 과중한 불안이나 공포는 글쓰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여 글쓰기 자체를 싫어하고 글쓰기 과제를 기피하게 만든다.

글쓰기에 대한 태도는 필자의 지식과 이전의 글쓰기 경험 등에 의해 형성되며 앞으로 겪게 될 표현 경험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글을 쓰면서 글쓰기가 지닌 힘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면, 학생들은 글쓰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글쓰기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닌 필자는 글쓰기 과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표현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지닌 필자는 글쓰기 과제나 글을 써야 할 상황을 되도록 피하려고 할 것이다. 글쓰기에 대한 태도는 필자의 글쓰기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설문 조사 결과 학생들은 자신이 아는 것이나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 쓸 때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며,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글쓰기가

좋다고 글쓰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교실 환경에서 과제로 주어지는 글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글쓰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학생들은 대부분 부족한 자신의 글쓰기 능력을 그 이유로 들었다. 글쓰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학생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글쓰기 결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글을 쓰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글쓰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쓰기 지도에서 학생의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킬 만한 적절한 작문 과제를 제시해야 하며,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작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부담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반응해야 한다. 또 학생이 글을 쓰고 싶어하도록 글쓰기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Abstract>

The Writer's Attitude toward Writing

Kim Jeong-ja

Writing requires concerted effort and concentration, marshaling of many intellectual resources, and the skilled negotiation of numerous constraints.

There are many personal factors that influence how well people write. Writing performance should depend partly on emotional factors.

Writer's attitude is one source of individual difference that carries implications writing process and writing performance. The attitude play prominent roles in all human activity, writing included. The intrinsic motivation and emotion such as anxiety, pleasure, anger etc. weigh heavily, concerning attitude toward writing.

The writer who has positive attitude toward writing finds emotional satisfaction in completing documents and is satisfied his composition,

Anxious writers felt more obligated to write, were less happy about writing, felt it was harder than it used be, experienced more self -doubt, and enjoyed it less than enthusiastic writers.

Students mentioned that they felt enjoyment when they want to write and write about interesting things. And they felt negative feeling about writing when they are obligated to write in classroom.

Therefore above all teacher should make them to have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writing to teach students writing. Teacher must give students a task that calls intrinsic motivation to their mind. On evaluating their wring process and performance teacher must be careful lest they fell a burden and anxiety. And teacher must make the appropriate writing environment and writing situation in order that they feel inclined to do writing.

【Key words】 writing, attitude, motivation, emotion